

본회 연구위원. 영국 Roehampton Institute 유학중. 신학.  
황영철

## 서평: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The Universe Next Door, 제임스 사이어 지음, 김현수역, IVP.

이 책은 1985년 5월에 초판이 나온 이래로 계속 인쇄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 그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생각은 하면서도 그다지 좋은 지침서를 발견하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이 책이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행히 이 책과 더불어 IVP에서 세계관과 관련된 몇 권의 책이 나와서 계속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 책이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은 이 책이 지나치게 '신앙주의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인 듯하다. 이 책은 기독교만을 지나치게 변호하거나 선교를 강조하는 종류의 책이 아니다. 저자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잘 나타내주고 있듯이 이 책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동기에서 쓰여졌다: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세계관, 그리고 실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찾고자 하는 분투, 이것이 바로 본서의 내용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서의 목적은 첫째, 서양인들에게 있어 자신과 타인, 자연계와 하나님, 혹은 궁극적 실재에 대한 사고 방식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세계관을 개요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세계관들이 유신론적

세계관의 붕괴로부터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새로운 의식(New Consciousness)등을 거치면서 변천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 모두가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 즉 자기의 사고 방식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고 방식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현대의 다원사회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상호간에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8면). 이 책의 이런 의도와 특성 때문에, 오늘날 자기의 기독교 신앙과 현대의 사상 사이에서 접합점을 찾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은 좋은 지침서다.

이 책이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 책이 세계관에 접근할 때에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광범한 시야를 제공한다는 사실 때문인 듯하다.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날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또한 이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 필연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세계관 이해를 위해서 저자가 소개한 역사적 변천은 실은 서양 사상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대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저자는 능숙한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독자가 자칫 흥미를 잃기 쉽다는 위험을 잘 극복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은 이 책의 흥미를 배가한다.

그러면 저자는 어떤 틀에 의하여 서양 사상을 분석하고 있는가? 저자가 취하고 있는 바 서양 사상사 분석의 틀이 바로 그가 정의하는 세계관이다. 그는 세계관을 정의하기를, “첫째,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재는 무엇인가? 둘째, 인간은 무엇인가? 셋째, 인간의 사망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넷째,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다섯째, 인간의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20-21면)에 대한 대답이라고 정의한다. 즉 적어도 어떤 사람이 잘 갖춰진 세계관에 의하여 산다고 할 때, 이는 위의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서양 사상의 변천을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고찰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세계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피한 채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취하거나 저런 입장을 취하게 된다. 하나의 명백한 세계관을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관이거나, 적어도 하나의 철학적 입장임이 입증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이미 휘말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자신의 세계관을 검토하며 살든지 검토하지 않고 살든지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전자의 삶이 더 보람되다는 것이 본서의 가정이다."(22면)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세계관이 뒤섞여서 존재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세계관의 특성과 다른 세계관의 특성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첫째는, 그렇게 되어야만 그는 자신의 신앙에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하여(실은 이것은 한 가지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믿는 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세계관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관의 성격과 그 형성 배경을 보여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런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세계관의 변천 과정에서 생긴 많은 세계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거의 동시적으로 전부 존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신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그는 자칫 자연주의적인 입장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를, 세계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지식 체계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마치 최초의 이신론자들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일단 그가 자연주의를 취하게 되면 그는 이제 전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어떤 태도로 이

해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보여 준다. 즉 순수한 신앙으로부터의 미묘한 일탈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살린 역자의 수고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보다 나은 번역을 위한 역자의 끈기가 엿보인다. 더우기 역자가 각 장 뒤에 첨가한 토론 문제들은 이 책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무릇 모든 번역서에서 느끼는 아쉬움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한국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서양은 이미 이런 긴 기간의 발전과 변화를 거쳐서 도달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역사가 우리 자신의 역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와닿는 정도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세계 시민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책은 서구 사상을 이해하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

이런 책이 좋은 지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을 분명하게 이해하며, 그리하여 이 다원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또한 한국 사상의 변천을 그 나름으로 분석해서 제시하는 책이 기독교인 중에서 탄생하기를 바라는 바이다.